

동·서양 정치사상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한국정치사상의 모색을 위한 시론: 근대성의 형성과 변용 그리고 그 전환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홍태영 | 국방대학교

| 국문요약 |

이 글은 동·서양 정치사상의 이분법을 넘어 한국정치사상의 정립을 위한 시론적 글로서 정치사상이란 무엇이며, 그 역할과 책무, 그리고 그에 따른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서구 정치사상의 네 가지 흐름 - 미국 시카고학파, 영국 케임브리지학파, 프랑스 아날학파, 독일 개념사학파 - 이 각 나라의 근대성에 대한 고유한 문제의식과 결합된 정치사상의 방법론과 문제설정을 어떻게 형성·전개하는지를 살펴본다. 3장에서 근대성에 대한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본정치학적 문제설정과 1990년대 이후 한국정치사상 연구의 다양한 모색들이 지닌 문제의식을 살펴본다. 이러한 다양한 흐름들이 각 나라 근대성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아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정치사상의 고유한 방법론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봄으로써, 마지막 4장에서는 동·서양 정치사상이라는 구분 자체가 갖는 한계와 그것의 극복을 통한 한국정치사상이 추구해야 할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정치사상, 한국정치사상, 정치사상 방법론, 근대성, 서구중심주의

* 졸고를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지만 추후의 연구를 통해 논의를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I. 서론

대학이 학문의 실용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정치학의 위기가 발생하고 그중에서도 정치사상은 정치학 내에서 예전만큼의 권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정치사상 자체가 현실 정치와 지나치게 멀어져 버린 스스로의 잘못된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인문학의 유행 속에서 마치 정치사상이 교양 혹은 고담준론의 창고로서 여겨지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고대 이래 정치적 사유가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항상 공동체로부터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자 했다는 것 때문이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한 문제의식은 뚜렷했다. 플라톤의 『국가』의 출발점은 공동체의 정의 및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정의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결국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문제가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퇴계와 율곡 역시 도덕적 이상사회의 실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가의 철학과 이념 그리고 국정운영 방향, 즉 시대의 당면과제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김형찬 2018; 박성우 2014). 실용성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최근 정치사상이 현실로부터 너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동·서양정치사상의 구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서양 정치사상의 구분이 연구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구분에서 비롯될 수는 있지만, 정치사상이라는 학문의 차원에서 볼 때 현재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동·서양 정치사상 구분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육, 연구의 측면에서 동·서양정치사상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서양정치사상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한때 동양 및 한국정치사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연구와 교육이 활발해지긴 했지만, 금세 위기에 빠진 듯하다. 사실 서양정치사상이 지배적인 이유는 현재 우리의 삶이 서구적 근대에 의해 만들어지고 규정되는 삶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우리의 삶이 과거의 전통에 의해 규정되고 내면화된 무엇이 있다는 것 때문에 동양정치사상을 교육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은 추상적이다 못해 공허하다. 하지만 현재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서 서양정치사상의 우위가 서구중심주의 및 오리엔탈리즘의 여파라는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서구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이 최근 확산되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치학 전반에 걸쳐 서구중심적 사유가 강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다양한 정치적 현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질문을 도출한다면, 답변을 찾는 과정에서 또한 다양한 통로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동·서양 정치사상 구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적’ 현실이 제기하는 문제에 답하는 ‘한국’정치사상의 재구성이 아닐까?

이상의 논의로부터 정치사상이란 무엇이며, 그 역할과 책무, 그리고 그에 따른 연구 방향, 나아가 궁극적으로 ‘한국’정치사상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치사상 및 정치철학에 대한 다양한 흐름과 방법을 접해 왔다. 각 정치사상의 흐름에서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사상의 방법론 및 그 연구 주제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낸 공동체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우선 2장에서 서구 정치사상의 네 가지 흐름 – 미국 시카고학과, 영국 케임브리지학과, 프랑스 아날학과, 독일 개념사학과 –이 각각의 나라의 근대성에 대한 고유한 문제의식과 결합된 정치사상의 방법론과 문제설정을 어떻게 형성하고 전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¹⁾ 그리고 3장 1절에서 일본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본에서 근대성의 변용과 형성 그리고 일본정치학의 문제설정 그리고 2절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정치사상 연구자들의 다양한 모색들의 문제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흐름들이 각 나라 근대성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하

1) 서구정치사상연구의 네 가지 흐름이 서양정치사상연구를 모두 포괄할 수는 없지만, 네 개학과는 나름 그들 사이에 비판적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예를 들어 스키너는 스트라우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면서 독일 개념사 학파와의 차별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으며, 독일 개념사 학파 역시 스키너 및 아날학파에 대한 언급과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로장발롱 역시 스키너와 개념사학파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자주 행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자신과 다른 학파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거나 구별짓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고 훨씬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면서 그것을 정치학적 문제의식과 결합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유한 정치사상의 방법론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근대성의 이식·수입, 변용의 과정에 대한 인식과 한국에서 근대정치의 이해를 위해 한국정치사상이 추구해야 할 문제의식과 그 방법론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서양 정치사상이라는 구분 자체가 갖는 한계와 그 극복의 방향에 대한 시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근대(성)의 상이한 출발과 그 형성에 대한 이해들

1. 서양정치사상의 다양한 조류와 방법론

이하에서 살펴볼 서양정치사상 연구의 네 가지 흐름은 그 연구방법론과 정치사상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주요하게 두 가지 문제와 결합되어 구별된다. 하나는 근대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학)와의 관계설정이다. 물론 이 두 가지 문제는 자신의 고유한 역사 속에서 근대성 형성의 특수성을 규명하려 하며, 그것은 현재 자신의 공동체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합되어 있다. 결국 현대 정치철학에서 역사(학)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온 정치사상연구의 경우 특히 ‘근대(성)’ 및 근대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에 집중된다. 근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근대가 자신의 공동체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 정치체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러한 정치사상연구의 공통된 특징은 러브조이(Arthur O. Lovejoy) 이래의 사상사(history of political thoughts) 및 관념사(history of ideas)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으로부터 자신의 고유한 방법을 출발한다는 점이다. 사상사나 관념사의 경우 그것들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개별 이념의 내적 연관성에 대한 무시 속에서 단위 이념들로

구성된 철학체계와 이데올로기의 전개만을 파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결국 이러한 비판은 역사(학)와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시키면서 정치철학의 작업을 수행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정치사상과 역사(학)의 결합에서 출발한 새로운 정치사상의 추구라는 유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개별 나라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형성된 근대성에 대한 정치사상과 역사(학)의 결합에서 출발한 이러한 정치사상의 구성은 각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근대(성)의 형성에 있어서 선발전역에 해당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정치사상의 문제의식은 근대성의 한계 내지는 그것이 만들어낸 폐해에 대한 비판과 정정의 필요성 그리고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다. 독일의 경우 이와는 차별화된 문제의식이 보인다. 즉 근대성에 있어서 선발전역과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그러한 차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근대성을 확립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근대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나라별 특수성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카고학파의 스트라우스, 영국 케임브리지학파의 스키너, 프랑스 로장발롱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레오 스트라우스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은 고대정치철학이라는 자신의 준거점과 결합되어 있다. 마키아벨리에서 시작된 근대성의 첫 번째 물결은 가치척도의 저하를 통한 현실주의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정치철학에 대한 거부, 즉 좋은 공동체 및 좋은 삶의 의미와 그 가치 추구를 포기하고 애국주의나 정치적 미덕으로 그것들을 대체한 것이다(L. Strauss 2001, 219). 자연적 의무를 대신하여 자연적 권리를 강조하는 홉스와 로크에 이르러 개인은 도덕적 세계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근대성 제2의 물결을 형성한 루소에 이르러 이성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필연적 일치를 통해 초월적인 것을 제거하였고, 그것은 헤겔의 역사철학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니체에 의해 열린 근대성의 세 번째 물결은 개인과 근대국가 간 조화의 가능성을 거부하면서 법을 창조하고 부과하는 위대한 개인을 발견한 것이다. 근대사상은 가장 극단적인 역사주의 속에

서, 즉 영원성의 관념을 망각에 빠뜨리면서 최고의 자의식에 도달한 것이다(L. Strauss 2002, 75-76). 근대성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비판은 결국 고전정치철학으로의 회귀라는 정치철학의 임무를 부과한다. 스트라우스는 정치철학이란 “좋은 삶, 좋은 사회가 무엇이나는 지식을 향한 지향성”이 명시화되는 탐색이라고 정의한다(L. Strauss 2002, 10-11).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고대정치철학 특히 플라톤의 정치철학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에서부터 출발하였고, 그러한 의존에 근거하여 마키아벨리 이래 근대정치철학을 비판하였다. 고대정치철학이 제기한 질문은 “최선의 정치체제란 무엇인가”였다. 여기서 정치체제란 단순한 정치제도를 넘어서 공동체의 질서와 형식이며, 삶에 대한 특정한 양식이다. 그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형식이며 사회를 살아가고,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양식”이다(L. Strauss 2002, 45).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체제의 문제는 결국 ‘정치적인 것’의 문제이다. 레오 스트라우스는 정치철학이 철학의 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치철학은 “정치적인 것들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로서 고유한 역할을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L. Strauss 2002, 13). 결국 정치철학은 진리에 대한 학문이며 정치적인 것의 영역 또한 진리의 영역이 된다.²⁾

레오 스트라우스의 이러한 정치철학 개념에 대해 케임브리지학파의 켈틴 스키너는 명백한 반기를 든다. 스키너는 “개별적인 질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만이 있을 뿐”이며, “질문자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다른 질문”이 있다고 주장한다(Q. Skinner 2012, 143). 즉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여러 다른 의도로부터 만들어지고 발화된 다양한 진술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들, 즉 텍스트가 “무슨 의미로 의도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그런 의미를 갖도록 의도”되어 작성

2) 시카고학파는 텍스트에 대한 치밀한 독해로부터 출발하여 정치철학을 수행한다. 고대정치철학의 텍스트는 단순한 독서를 통해서가 아닌 일종의 암호 풀이와 같은 것으로 엄밀한 작업이 요구된다. “숨겨진 암호를 찾아 비로 쓸 듯이 살살이 읽어라”라고 말하는 경구가 말해주듯이, 고전연구에 있어서 암호해독을 위한 텍스트의 집요하고 철저한 정밀독해를 강조하는 것이다(김홍우 1992, 1; 함규진 2014).

되고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Q. Skinner 2012, 141). 텍스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적’ 작업으로서 언어적 협약과 그것을 통한 언어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³⁾ 스키너의 정치철학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져 버린 근대 초의 경쟁적 구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도덕적으로 현재 우리 세계에 대한 대안적 구상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자 한다. 스키너는 대안적 가능성을 발굴함으로써 현 상황에서 정치 이론이 무비판적인 이데올로기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새로운 대안을 통해 현 상황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자 한다(Q. Skinner 2012, 200-201). 공화주의 정치철학자로서 스키너가 수행한 마키아벨리와 근대 정치사상 연구는 마키아벨리에 대한 기존 해석을 넘어 새로운 해석을 통해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의해 사라져 버린 공화주의 사상을 복원하였다(Q. Skinner 2004; 2010). 그리고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에 대한 스키너의 연구는 ‘권리 이론 없이 개인적 자유이론이 있을 수 없다’라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18세기 이후 자유주의의 지배 속에서 사라져 버린 공화주의적 자유, 특히 ‘신로마적 자유국가이론’을 복원하는데 기여하였다(Q. Skinner 2007). 스키너 등 영국 케임브리지학파의 컨텍스트에 대한 강조는 명예혁명 이후 자유주의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한 휘그적 역사관에 의해 파묻혀 버렸던 대안적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또한 서구 역사 속에서 주변화되어 있었던 로마 이래의 공화주의 사상과 역사를 복원하고자 한 것이었다.

프랑스 아날학파의 전통 속에 있는 로장발롱은 근대성에 내재된 모순에 주목한다. 로장발롱은 ‘민주주의는 역사를 가진다’를 넘어서 “민주주의는 역사이다”

3) 스키너는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말해진 것의 의미만이 아니라 텍스트의 저자가 그 말을 함으로써 담고자하는 의미에 대한 설명도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Q. Skinner 2012, 131). 스키너는 저자의 말화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언어적 맥락(context)을 통한 이해를 강조하고 특정한 맥락 속에서 저자의 의도, 즉 저자가 말하고 행하고자 한 바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기존 정치사상 연구에서와 같이 ‘단위 관념’을 추적하거나 ‘영속적인 사안들’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찾는 작업은 피해야 할 연구방법이라고 말한다(Q. Skinner 2012, 140).

라는 테제를 통해 자신의 작업의 성격을 드러낸다(P. Rosanvallon 2002). 근대 정치의 이해는 곧 민주주의의 이해이며, 민주주의에 내재된 모순적 특성을 근대성 자체로 파악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장기적인 시간 속에서 형성된 모순 덩어리로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자체 내에서 모순의 해결 가능성을 찾았던 토크빌의 영향이자, 또한 ‘아날(Annales)학파’의 전통이기도 하다. 로장발롱은 프랑스 자유주의 전통을 복원하고자 하면서 토크빌의 사유가 보여준 근대 민주주의의 내재적 모순성, 즉 민주주의적 전제정의 가능성과 민주주의 자체의 모순 해결의 열쇠로서 정치적 자유의 추구를 장기적인 시간의 흐름 - 토크빌의 시간관이자 동시에 아날학파의 개념이기도 한 ‘장기지속’ - 속에서 읽고자 했던 것이며, 그것을 통해 이후 근대 민주주의 이해의 중요한 열쇠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한 시각에서 프랑스혁명에 대한 해석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 및 공화주의의 정착 과정에 대해 탐구하였고,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목적론적 해석을 거부하고 그 개념들이 갖는 모순과 긴장을 드러내면서 프랑스 민주주의의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한다.⁴⁾ 로장발롱은 사회를 형태 짓고 사회적인 것에 대한 해결의 양식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정치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정치적인 것에 대한 개념적 역사”로서 정치철학자의 작업을 정의한다(P. Rosanvallon 2002). 곧 ‘정치적인 것’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 정치철학이며, 그것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확장의 가능성을 보고자 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비결정성 및 모순성,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되는 빈 장소로서 권력, 열린

4) 로장발롱의 역사 읽기에 영향을 준 리코르는 텍스트가 원저자 혹은 발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이나 언어의 은유적이고 다의적인 특성 때문에 원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의미의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장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조화된 전체로서 “텍스트가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저자가 의미한 바와 일치하지 않”으며, “올바른 이해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저자의 의도에 돌아감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P. Ricoeur 2003, 245; 369). 따라서 텍스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저자의 의도 - 스키너가 강조했던 - 보다는 그 텍스트가 새로운 맥락 속에서 얻게 되는 공적인 의미이며, 새로운 의미의 획득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해석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공간으로서 정치적인 것을 사유하는 것은 관계들의 체계로서 사회를 이해하는 사회·과학의 영역이 아닌 바로 정치철학의 영역이다(C. Lefort 2015).

스트라우스가 근대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고유한 정치철학을 확립하려 하고, 스키너와 로장발롱이 근대성에 내재한 다양한 흐름과 모순에 주목했다면, 독일의 코젤렉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사학파는 근대성 형성에 있어서 후발국가인 독일의 특수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흐름을 형성한다. 코젤렉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사학파는 사회구조의 역사와 결합한 개념 형성의 역사에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독일적 근대의 특수성, 즉 프랑크 계몽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보편주의적 문명과 구별되는 독일적 근대성 형성의 특수성을 통해 독일 역사를 이해하고자 한다. 개념사 학파는 독일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회사와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개념사 학파는 독일 역사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로부터 발현된 고유한 연구방법을 구성하고자 한다.⁵⁾ 코젤렉의 개념사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과 경로를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다양한 근대 세계의 출현과정에 대한 엄밀한 성찰을 목적으로 하는 고유한 방법론으로서 개념사를 적용하고자 한다. 특히 개념사 학파는 독일적 특수한 발전 - *Sonderweg* - 을 주장하면서 독일어권에서 근대의 등장과 함께 형성된 그 특수한 형태와 그 형성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M. Richter 2010, 104). 코젤렉은 개념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한 역사의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는 인식범주로서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R. Koselleck 1998, 388-415). 그는 이 범주에 기반하여 인류학적으로 주어진 경험의 공간과 기대의 지평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비롯한 시

5) 개념사 연구자 리히터는 스키너 및 포콕(J. G. A. Pocock) 등의 맥락주의 연구와 자신의 개념사학파를 비교하면서 스키너의 연구 - 특히 『근대정치사상의 토대』 - 가 “경쟁집단, 운동 또는 권력자들 사이 투쟁의 언어 속에서 개념의 용법을 추적하기보다는 개별 이론가를 공화주의나 절대주의의 범주 속에 넣음으로써 논쟁의 맥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근대 국가를 향한 역사 발전이라는 목적론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M. Richter 2010, 233).

간성의 지표를 통해 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근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개념사 연구는 근대 세계의 출발에서부터 시작되며, 또한 정치, 경제, 사회를 논의하기 위해 사용된 언어의 연구와 급진적인 구조적 변화에 대한 탐구를 결합시키고자 한다(M. Richter 2010, 85). 결국 개념사는 사회사와 결합된다. ‘개념사’의 기본적인 초점은 “정치·사회사상에서 사용된 주요 개념들의 의미의 연속, 변모 및 혁신”이다(M. Richter 2010, 34). 하지만 정치·사회적 언어는 역사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 의미의 연속성을 유지하거나, 또한 반대로 변환되면서 단어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의미 구조나 개념의 망을 통하여 특정한 담론이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개념의 역사에 대한 탐구는 개념의 사회적, 정치적 용법에 주목하기 위해 언어사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작동하였던 사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회사적 자료들에 대한 연구와 결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개념들의 전환과 사회의 변화 사이에 역동적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치사상 및 정치철학 연구 네 가지 흐름의 출발점은 자신들이 기반하고 있는 정치공동체의 현재적 문제의식이며, 각각 상이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상이한 방법론 그리고 정치와 역사에 대한 상이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정치철학의 과제는 근대의 위기 - 나라 및 학파에 따라 자유주의의 위기 혹은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근대성 자체의 위기 등의 형태로 진단 - 로부터 근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탈출구 -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출구를 찾거나 민주주의 자체의 쇠퇴를 위한 노력, 혹은 근대성을 비판하는 방식 등 - 를 모색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근대의 문제설정 즉 근대의 넘어설 수 없는 지평으로서 ‘민주주의’의 문제는 각각의 나라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그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찾고자 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점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III. 문명화과정의 객체에서 자생적 근대성의 발견 그리고 근대성의 변용으로

서구 근대화의 물결을 수용하거나 그것이 강제되었던 동양의 경우, 정치사상과 관련하여서도 이중적 과제를 갖는다. 하나는 서구의 근대화가 제기한 문제, 즉 동양과 서구와의 만남이 제기한 문제로서 서구적 근대를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할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동양의 정치사상이 제기한 문제로서 동양의 정치사상이 서구의 근대화를 만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이다. 결국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만들어낸 정치사상의 과제를 자신에게 고유한 정치사상, 즉 ‘한국’정치사상, ‘일본’정치사상, ‘중국’정치사상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⁶⁾

1. 마루야마 마사오와 일본정치사상

마루야마 마사오는 오규 소라이라는 에도의 사상이 저작을 독일의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엄밀하게 분석해냄으로써 일본의 ‘근대성’의 뿌리를 밝히는 독자적인 학풍을 성립시키면서 일본학계의 스칼라십 수준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마루야마 마사오는 지극히 일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사상 및 정치철학이라는 학문을 수행하였다. 마루야마 스스로도 자신의 책, 『日本政治思想史研究』를 “근세 시기를 망라한 정치사상 내지 정치학설의 통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문제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마루야마 마사오 1995, 80-81). ‘사상사’라는 명칭을 가진 자신의 작업에 대해 마루야마는 이러

6) 중국정치사상의 흐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커다란 한계임은 분명하다. 언어적 한계와 더불어 중국정치사상 특히 근대 중국정치사상이 충분히 소개되지 못한 부분도 그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 경험을 거치면서 근대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 것도 한 원인이 될 것으로 짐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요한 연구과제임은 분명하다.

한 ‘사상사’는 독립된 학문으로서 ‘한 시대의 정신적 전체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또한 그 역사적 추이를 분명하게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마루야마 마사오 1997b, 19-20). 이러한 사상사는 사료적 고증을 엄밀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맥을 배제하고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는 ‘사상론’과 구별된다. ‘사상사’는 비록 ‘사실사(事實史)’와 다르지만 사료적 고증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자료의 주체적인 구성”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작업을 갖는다. 하지만 ‘사상사’의 작업은 마치 작곡가의 영혼을 재현해야 하는 연주자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창조하는 것은 아니며 일종의 이중 창조로서 ‘추창조(追創造)’를 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에 구속당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역사에 대해 자신이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마루야마 마사오 1997b, 40).

이러한 사상사에 대한 정의와 방법론을 제기한 후 마루야마는 일본 사상사 연구의 당면 문제로서 근대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한 근대성의 문제는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충격에 대해 어떤 식으로 주체적으로 대응했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마루야마 마사오는 유럽 사상사를 기준으로 그것이 동양에 들어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비교도 필요하지만, 어떤 문제를 세우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어떤 식으로 유럽의 근대 사상을 그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사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마루야마 마사오 1997b, 43-44). 이것은 분명 마루야마오가 유럽중심적인 사유를 동양의 일본이 어떻게 근대에 대해 주체적으로 사유했고 대응하고자 했는지를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루야마의 구체적인 사상사 연구 작업의 성과물인 『日本政治思想史研究』는 결국 일본의 근대성의 형성, 그 뿌리를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유럽의 근대성이 어떻게 일본에 뿌리내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어떻게 근대성을 형성해 나갔는가에 대한 작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의 글의 주된 동기는 “봉건 사회에 있어서의 정통적인 세계상이 어떻게 내면적으로 붕괴해 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러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마루야마는 일본사상의 근대화의 패턴, 즉 서구 및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갖는 일본 사상의 근대화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결국 마루야마는 오구 소라이가 이룩한 ‘유교의 정치성’의 발견, 즉 유교를 정치화함으로써 일본의 봉건시대에서 근대성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마루야마 마사오 1995, 207-208). 그것은 정치적인 것과 사적인 도덕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효과를 동반하였다. 나아가 마루야마는 정치적인 것의 독립성을 통해 정치적 지배를 위한 혹은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한 ‘작위’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것은 자연적 질서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주체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마루야마 마사오 1995, 347-348). 마루야마는 자신의 이러한 작업을 『日本政治思想史研究』라는 책으로 묶어 냈다.

마루야마의 이러한 작업은 일본이 중국과 달리 ‘근대’가 내재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려 하였다는 점과 함께, 당시 ‘근대의 초극(超克)’으로 불리는 보수우익들의 시류에 영합하는 전체주의 논리와 국수주의적 주장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자 했던 ‘사상적 저항’의 표현이었다고 평가받는다(김석근 1997, 24). 하지만 근대화가 성공한 후에 근대성의 사상적·문화적 요소가 일찍이 내재해 있었다는 ‘사후적 논리구성’은 반증불가능한 명제에 가깝다는 강정인의 비판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강정인 2013, 397). 강정인은 마루야마가 서구중심주의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일본중심주의를 전개했다고 비판한다. 마루야마에게는 분명 서구적 근대화가 도달해야 할 목표지점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중국과 달리 일본의 주자학, 특히 소라이가쿠에는 서구의 근대를 흡수 혹은 적극적으로 맞이할 정도의 근대성을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있었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 경우 결국은 서구의 근대성이라는 보편성 및 일본의 그것에 대한 맹아의 존재에 대한 일본의 상대적 우월성 나아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정당화의 논리도 가능해진다. 자생적 근대화의 맹아가 없었던 조선을 근대화된 일본이 지배함으로써 한반도의 근대화를 가능케 한다는 논리이다.⁷⁾

마루야마는 이러한 자신의 청년 시절 작업이 한계를 가졌다고 판단했는지 전후 자신의 작업에 대한 자기비판의 과정을 거친다. 마루야마는 자신이 맑스주의자인 적은 없지만, 맑스주의의 영향을 받아 “보편사적인 역사적 발전단계가 있다는 것을 당연의 전제로 하여 사상사를 생각”하였다는 것이며, 헤겔의 이른바 ‘세계정신의 전개과정’으로서 사상의 발전을 파악하려 하면서 사상사를 접근하였다는 것이다(박충석 1998, 421-422). 서구의 보편주의에 대한 시각은 결국 마루야마 스스로 서구중심주의적 시각을 체현하고 있음을 실토했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비판과 함께 마루야마는 ‘원형’, ‘고층(古層)’, ‘집요한 지속저음’, ‘집요저음’과 같은 개념들을 통해 문화접촉과 문화변용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변용된 사상사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일본 역사의식을 ‘고층’을 이루는 것들에 의해 ‘잇달아 되어가는 추세’라는 구절로 그 경향성을 표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역사의식의 ‘지배적인 주선율’로서 전면에 나섰던 것은 유교·불교·노장사상 등 대륙에서 전파된 관념이며, 또 메이지 유신 이후는 서구로부터 수입된 사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마루야마 마사오 1998, 351). 결국 마루야마는 외래사상이 일본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 공통된 패턴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패턴을 ‘고층’이라는 사유양식으로 표상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 주선율을 이루는 외래사상을 어떠한 형태로 수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본사상사 방법론을 제시했던 것이다(이희복 2010, 343-349). 이 즈음에서 마루야마는 정치사상에 대한 자신의 정의와 방법론에 기반한 ‘일본’ 정치사상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치사상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마루야마의 작업은 정치사상 연구와 더불어 정치사상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일본 정치의 현상 분석에 대한 작업으로까지 확장된다. 마루야

7)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발로 1960년대 김용섭 등등 한국사학계에 내재적 발전론이 등장하였고, 한국의 역사가들 역시 조선에서 근대의 맹아를 찾으려는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다. 여전히 이러한 논의는 진행 중이며, 2019년 반일민족주의 전개 속에서 식민지근대화론 역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마 마사오의 <과학으로서의 정치학>(1946)과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1946)라는 두 논문은 “전후 일본 정치학의 새 출발을 선언한 문서”로서 “전후 일본 정치학의 방법론과 연구 주제에 관한 시사와 방향성 및 모델”을 제공한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고희탁 2013, 153). 우선 전자에서 마루야마는 일본 정치학이 “자체의 기반과 환경으로부터 문제를 끄집어내는 대신에 유럽 학계에서의 그때 그때의 주제나 방법을 끊임없이 뒤쫓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학문과 현실적 대상과의 분열이 심각함을 비판하고 자신의 논의를 출발한다(마루야마 마사오 1997, 394). 마루야마는 정치학의 ‘방법’의 문제가 결코 그 대상의 문제와 떼놓을 수 없이 얽혀 있는 것이 정치적 사유의 특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치학은 철저하게 구체적인 현실과 매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학자가 정치적 현실에 대해 “어떠한 이론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실천”임을 강조한다(마루야마 마사오 1997, 407).⁸⁾ 그러한 점에서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는 글의 초입에서 말하고 있듯이, 일본 국민을 예종적 상황으로 몰고 가고, 전 세계를 2차 세계대전으로 몰고 갔던 이데올로기적 요인으로서 초국가주의 실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일본 근대의 역사 속에서 정치체도와 민중의 심리구조와의 연관성을 포착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신의 작업으로 이후 연구된 자신의 작업을 일정하게 예측하게 한다.⁹⁾

두 개의 글 이후 『현대정치 사상과 행동』의 구성이 보여주듯이, 마루야마는

8) 그러한 점에서 마루야마의 많은 책을 번역한 김석근이 『현대정치 사상과 행동』에 붙인 ‘역자 서문’에서 마루야마의 학문적 구성을 평가할 때, ①에도와 메이지 시대 사상사 연구, ②일본 파시즘에 대한 분석과 비판, ③순수 정치학적인 주제들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이해가 아닌가 싶다. 마루야마의 정치학적 문제설정은 철저하게 일본정치 현실과의 관계 및 자신의 정치적 실천의 차원에서 전개된 것을 감안한다면, 그의 정치학적 연구 작업의 구조적 결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순수 정치학’이라는 표현 역시 어울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9) 물론 이것이 켄틴 스키너가 우려하듯이, 대학자의 저술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려 한다거나 일관된 논리가 작동한다는 식으로 짜 맞추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루야마 저술들의 내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1부 “현대 일본의 정신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묶이는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파시즘,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석 그리고 2부 “이데올로기의 정치학” 및 3부 “정치적인 것’과 그 한계”라는 제목으로 묶이는 서구 정치의 이데올로기적 현안 및 정치학적 개념, 결국 일본 정치의 현실의 문제로부터 도출된 이데올로기적 문제와 개념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마루야마는 그 책의 <영어판 서문>에서 그러한 자신의 작업이 일본사회에 대한 ‘병리학적 분석’이며, 그것은 일본이 “맹목적인 군국주의적 내셔널리즘의 분류(奔流)”에 무력했던 사태가 발생했던 원인에 대한 탐구로서 학문적 출발점을 삼고자 했으며 또한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실천적 응답”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마루야마 마사오 1997, 662-663). 그리고 그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맑스주의의 비판적 사회분석과는 달리 “일본문화의 성격을 검토하고 일본인의 일상의 행동과 사고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그 답을 찾고자 하였다(마루야마 마사오 1997, 663). 결국 마루야마의 정치사상 연구는 현실정치와의 연관성 속에서 그로부터 제기된 문제들, 특히 일본을 이해하고 또한 일본이 봉착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에 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치학자로서의 문제를 찾는 과정과 동시에 답변이며, 또한 현실에의 개입이었다. 이러한 작업의 과정에서 마루야마는 일본의 전통적 정치사상의 발굴 작업은 물론 서양정치사상으로부터의 개념들을 자유롭게 적용하면서 ‘일본’ 정치사상을 구성해 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정치사상의 다양한 모색

정치사상연구에 있어서 해방 이후 오랫동안 한국정치학계에서의 특징은 서구 사상에 대한 소개와 재해석 내지는 특정한 개념을 통한 그것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해방 이후 1990년대 이전까지 정치사상 연구의 특성은 정치사상가별, 시대별, 관념 또는 개념별로의 이해 등이거나 혹은 그

것들을 적절하게 혼용하는 것을 그 방법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조찬래 1996, 15-16).¹⁰⁾ 하지만 그 대상에 있어서는 대부분 서양정치사상을 주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정치사상이라는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다면,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의 연구는 ‘근대화’의 시각에서 한국정치사상을 접근하는 것이었다(안외순 2011, 363). 결국 근대화의 시각은 서구중심주의를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한국정치사와 한국정치사상을 바라보거나, 이제 한국정치사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부남철 2002, 20). 이것은 해방 이후 한국사회과학의 경향과도 맞물려 있다. 1960년대 이후 근대화론이 유입되었고, 또한 일제 시기 이래 ‘식민사관’의 극복의 노력 속에서 등장한 ‘내재적 발전론’의 경향은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1963년 2월 호 『사상계』의 특집 “한국사를 보는 눈”을 통해 식민사관의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려는 시도가 제기되었다.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사의 해석에 있어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입론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1960년대 미국의 행태주의적 방법론에 근거한 정치학의 보급과 근대화론의 확산은 한국 정치학 전반에 걸쳐 미국정치학이 지배하는 구조를 낳았다. 따라서 정치사상 연구에 있어서도 서양정치사상을 소개하거나 번역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서 본 마루야마 마사오처럼 한국 내에 근대성의 맹아를 찾으려는 시도와 같이 내재적 발전론의 영향을 받은 한국정치사상 연구는 거의 부재 - 한국사 연구자들의 경우는 예외이다 - 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정치학은 다른 어느 분야에 비해서도 미국 내지는 서양정치학의 지배가 뚜렷했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서구정치의 가치가 ‘보편성’을 가지고서 한국 정치(학)에 가장 큰 화두이자

10) 물론 1970년대에도 한국적 정치학 및 한국정치사상 연구의 고유성 및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정치학의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학자들도 존재하였다. 문승익(1974)은 ‘자아준거적 정치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의 상황과 필요에 조응하는 정치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최창규(1979)는 문승익에 이어서 “주체의 자아준거적 자기의지”에 따른 역사에서의 재생산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해결해야 할 현실적, 이론적 과제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정치사상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고 한국정치사상 고유의 문제의식 역시 확장되고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적’ 정치사상에 대한 모색과 더불어 한국정치사상의 독자성과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되었다(안외순 2011, 365-366). 예를 들어 한국정치사상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등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불교, 기독교 등 종교의 정치사상적 관련성을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거나(김한식 1999), 한국정치사상의 통사적 구성을 위해 그 유기적 연결고리로 유교정치에 주목할 것(손문호 2001), 혹은 개념별·사상가별·시대별 고전에 대한 연구(이택휘 1999), 그리고 현실 상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 비전, 목표 등을 고려하는 문제해결적 접근을 강조하는 연구(정윤재 1999)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제안들을 검토하면서 부남철은 ‘한국정치사상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부남철 2002). 이것은 결국 한국정치사상 연구에 있어서 한국정치사상에 대한 문제의식, 연구대상과 방법에 대한 학적 공감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정치사상 연구는 그 연구대상의 확장, 방법론의 다양화 등등 많은 성과들을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원론적 수준의 논의가 오히려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한 공유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배병삼은 한국 정치학의 외면은 서구 정치학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한국 정치학의 속살구조는 전통 정치문화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배병삼 2013, 236). 하지만 배병삼의 경우 오히려 서구중심주의적 한국정치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배병삼은 정약용에게서 한국 정치과학, 즉 정치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주목하고 사유한다는 점에서 ‘과학’으로서 정치과학의 기원을 발견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약용은 “정치를 객관화하고 이에 대해 정면으로 서술하는 논문”, <原政>을 남겼으며, 전통 유교가 개인의 삶과 가족공동체 그리고 자연계까지 미치는 광대한 영역을 포섭해 정치를 인식하는 것과 달리 <원정>은 국가 내부의 공적 활동에 국한해 정치

를 대상화하는 점에서 정치과학적 특징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배병삼 2013, 238-239). 결국 배병삼 역시 ‘정치과학’이라는 것을 결국 서구 정치학의 기준을 통해 정의하고 있다. 그는 한국 전통적 정치학, 즉 조선의 정치학 속에서 서구적 정치학의 요소가 있는가를 발견하고자 하며, 그것을 통해 한국 정치학의 기원을 찾고자 한다. 이것은 마치 마루야마 마사오가 오규 소라이에게서 근대성의 요소가 있었음을 발견했던 것과 유사한 ‘데자뷰’ 현상이다. 유사하게 배병삼은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중국과 조선의 국제관계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국제정치적 차원의 국가’를 발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를 국제정치학자로 칭한다. 그리고 최한기는 ‘비교정치학’의 기원으로 위치 지워진다. 이렇게 되면 배병삼이 최초로 언급했던 한국 정치학의 속살구조는 18세기 있었던 실학자들에게서 존재했던 서구정치학의 흔적들이 된다. 결국 한국정치학은 외면에서는 서구의 절대적 영향력에 있고, 속살 역시 서구와 유사한 것이 된다면, 한국정치학은 얼마나 서구화되었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꼴이 되고 만다.

이와 달리 서양정치사상 연구자들의 한국정치사상에 대한 접근은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김비환은 한국정치사 연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이루었던 것은 정치경제학이나 정치사회학이었으며, 그러한 패러다임은 주로 정치적 근대화의 한계 혹은 그 가능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정치근대화의 주체로서 한국인의 도덕적 특성에 대한 연구의 소홀, 자아성찰적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한국정치사에 대한 정치철학적 연구의 부재라는 불완전성을 지적하면서 그 한계를 비판한다(김비환 1999). 따라서 김비환은 서구식 정치적 근대화와 한국인의 자아 사이의 부적합 혹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는 전통과 (서구적) 보편 사이의 균형, 즉 전통으로부터 제기된 지역공동체의 유대감과 보편적 시민의식 사이의 균형을 통해, 귀속과 자유라는 두 가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것을 이상적인 결론이라고 제시한다(김비환 1999, 25). 김비환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 제시한 ‘공동체 내적 개인’이라는 개념은 서양의 개인주의적 인간관을 극복하지 못했

던 한국정치사상 연구자들에게 전통과 현대의 조응의 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안외순 2011, 366).

양승태의 경우 서양정치철학 연구자로서 서양의 고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한국정치사상의 과제로서 ‘국가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그 문제를 정당연구와 연결지으려 한다는 점에서 정치사상과 현실정치 사이의 매개 고리를 찾으려는 의미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양승태 2006; 2011). 하지만 그의 시론적 문제 제기는 좀 더 구체적인 작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며, 자신의 연구의 출발점 역시 헤겔철학이라는 지극히 관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그는 “인간의 정신세계는 그가 속한 민족이나 국가의 교육, 문화, 도덕, 정치생활 등 사회적 및 역사적 삶 전체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한다”라는 헤겔적 사고틀을 통해 한국정치를 접근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설정은 구체적인 한국정치사에 대한 상대적 소홀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양승태 2011; 2015).¹¹⁾ 양승태는 케임브리지학파나 개념사학과와 같이 정치사상과 역사와의 결합을 추구하는 학문적 흐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현실의 역사적 맥락에서만 정치사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구체성과 생동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갖는다고 비판한다. 그는 정치현실에서 작동하는 정치사상의 경우 사상의 본질에 해당하는 현실 초월적 정신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 연구가 아닌 철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비환과 양승태의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후 한국정치사상 연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었는다고 하는 문제는 좀 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아직

11) 예를 들어 양승태가 한국 정당에서 최근 쟁점으로 제기되는 복지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양승태 2011, 20). 그는 복지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 복지문제가 대두된 현실과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각 정당의 현실인식과 대응책, 구체화된 정책 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란 개념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여 원래 복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극히 사변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된 연구방법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의 구체화 작업은 미진한 듯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강정인(2004; 2007; 2014)의 작업은 서양정치사상 전공자로서 서구중심주의 극복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정치사상에 대한 새로운 정립의 필요성 그리고 그에 근거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물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강정인은 주변부로서 한국의 정치사상 전공자들이 “중심과 주변의 위상적 차이를 사상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주변성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과 비옥한 비전을 토대”로 하여 한국정치사상을 구성해 내는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강정인 2007, 25). 실제 강정인은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한국정치사상의 전략을 제시한다. 서양정치사상의 한국화, 동아시아·한국 전통 정치사상의 현대화, 그리고 현대 한국정치 사상화 등 세 전략은 한국정치사상이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한국에 고유한 또는 특수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보편화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작업은 강정인이 제기한 한국정치학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한 삼중의 관계, 즉 전통학문으로서의 정치학과 서구 학문으로서의 정치학 그리고 그 학문이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이라는 삼자와의 입체적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이루어진다(강정인 2013b, 21).

따라서 그의 정치사상연구는 이 세 가지 축을 따라서 진행되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연구결과물 중의 하나인 『한국현대정치사상과 박정희』(2014)라는 저술이다. 현실정치의 문제를 정치사상적 접근을 통해 작업한 이 책은 그 삼중의 관계를 얼마나 잘 융합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줄 수 있다. 강정인은 한국근대정치가 갖는 서구문명에 대한 잠정적 보편성 즉 한국과 서구가 근대성의 물질적·정신적 기초 - 자본주의, 산업사회, 계몽주의, 합리주의, 진보주의, 민주주의 등 등 -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한국이 추구해온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한다(강정인 2014, 19-20). 그러한 보편-특수 관계를 묘사하고 한국 현대정치의 이념적 지형의 특징을 묘사할 수 있는 개념으로 ‘비동시성의 동시성’ 및 ‘민족주의의 신성화’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강정인의 이러한 접근은 박정희가 해방 이후 한국에

서 근대화 및 남한에서 국민국가 형성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사상적 이해는 한국현대정치사상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적 근대화가 중심을 이루지만 동시에 한국적 전통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며 그것을 통해 ‘한국적 근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박정희에 대한 사상적 이해가 결국 강정인이 말하는 삼중의 관계 속에서 한국정치학의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한국정치학이 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 가지 작업이 하나의 정치(학)적 대상에 대한 분석 속에서 결합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 성과이자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코젤렉이 말하였던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의 결합으로서 개념사의 연구 혹은 마루야마 마사오가 말하였던 접촉과 변용을 통해 재구성된 정치사상이라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남한)의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서 중심적 역할을 행한 박정희라는 인물에 주목하면서 그를 통한 한국정치의 사상과 역사를 들여다보고 한국정치의 실체를 밝히려 했다는 점은 강정인의 독창성으로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강정인의 연구는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그의 문제의식과 그로부터 제기되는 한국정치사상의 구성에 대한 다양한 혹은 포괄적인 제안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출발점에서 제시된 “정치사상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와는 거리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즉 그가 정치사상에 대한 정의와 그 역할에 대해 논하면서 정치사상은 “정치공동체를 운영하는 패러다임의 역할”을 하며 “현재의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풍부한 상상력을 토대로 하여 바람직한 정치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다는 점에서 규범적”이라고 주장하였다(강정인 2007, 11). 하지만 그러한 정치사상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그의 논의에 비추어본다면,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전략은 마치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다양한 시도는 정치사상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정치사상’ 자체의 출발점을 망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놓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강정인이 편집하여 출판한 『인물로 읽는 한국현대정치사상의 흐름』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강정인은 ‘정치사상’을 추상적이거나 이념적 수준에서 파악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그러한 정의에서 출발하여 ‘한국 정치사상’을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정치사상’이 “정치공동체를 운영하는 기본 프로그램 역할”을 하며, “인간의 정치적 삶에 대한 조건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정치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정치적 행동강령을 제공”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강정인 2019, 9).¹²⁾ 하지만 정치사상의 이러한 확대된 이해와 정의는 정치철학, 정치사상, 정치이데올로기 등을 거의 모두 포괄하는 정의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과욕은 결국 정치사상 자체의 정의와 범위를 흐릿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강정인이 스스로 재규정하는 ‘정치사상’ 및 ‘정치철학’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 의미에서 정치철학과 정치사상이 갖는 정의와 주어진 역할이라는 측면, 특히 ‘규범성’의 측면은 그에게 사라져 버린 듯하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정치사와 결합한 한국정치사상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강정인, 안외순 등은 한국정치사상의 현재화라는 이름으로 서구적 개념과 유사한 것들이 전통적인 한국/동양정치사상에 존재했음을 전제하고 그것을 복원하여 서구의 그것들과 재구성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하나의 개념에 대한 동·서양 정치사상의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개념의 풍부화 및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예를 들어 ‘justice’라는 서구적 개념에 대해 ‘정의’라는 동양적 개념을

12) 이러한 정의는 강정인 등이 번역한 테렌스 볼의 책에서 나오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의와 겹쳐진다(T. Ball et al. 2019). 하지만 레오 스트라우스 이래 정치철학, 정치사상, 이데올로기의 구분은 그것들이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데올로기와 정치철학/사상의 구분은 필요하다. 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근대의 산물로서, 대중과 (정치) 철학/사상의 만남을 위해 ‘정당’ 혹은 정치세력이 대중화한 관념으로서 그 역할과 함의는 분명 구분되어야 한다.

과거로부터 소환하여 둘의 만남을 통한 재구성이다. ‘한국적인 것’이라는 것은 한국의 고유한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온 것과 새로운 외부적인 것이 만나면서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동시에 현재의 한국인들의 문제의식 및 한국정치의 향방에 대한 연구, 결국 정치적인 것과의 동시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안외순 2011, 370-371). 그와 함께 안외순은 한국전통정치사상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개념들과 사상가의 인식, 문화적, 정치적 이념과 사상들에 대한 정치(精緻)한 이해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한편으로 서구의 근대성이 가져온 폐해를 동양의 전통사상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또 다른 편견의 산물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한다. 강정인이 한국정치사상 연구의 현재화를 위한 자신의 작업과 함께 대표적인 연구로 제시하고 있는 이승환, 장현근의 작업 역시 그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한국적 정치학’을 모색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장현근은 서구 민주주의의 한계와 그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동양적 사유 속에서 찾고자 한다. 즉 정치와 윤리의 재결합, 도덕적 정치엘리트의 육성, 권력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가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라는 이른바 동양적 사유를 통해 서구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장현근 2012, 13). 더 나아가 장현근은 동양정치사상이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등장한 현대의 정치가들에게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모범적 위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것을 통해 현대정치에 대한 각성과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장현근 2012, 20). 이승환 역시 자본주의적 근대성이 효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인간다운 삶에 대한 성찰을 위한 지적 자산을 유교에서 찾고자 한다. 즉 유교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청사진, 국가와 시장 간의 조정된 자율성, 도덕의 경제에 대한 우선성, 자기규율과 자기절제의 미덕 등은 자본주의적 근대성이 낳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지적 자산이라고 주장한다(이승환 2004, 269). 특히 유교의 자산은 물질적 진보에 매달렸던 근대에 대하여 문화적·도덕적 진보를, 탐욕과 개발 대신에 균평(均平)과 절검(節儉)에 눈을 돌리고

경제와 기술의 효율성 못지않게 인격의 완성과 공동체의 중건(重建)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주체적 근대화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본다(이승환 2004, 323-324).

결국 상당수의 동양정치사상 연구자들은 서양정치사상의 한계와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혹은 ‘규범성’의 역할을 동양정치사상에서 찾고자 하며, 심지어 서구의 사상가들 역시 서구의 근대적 사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우회로로서 동양적 사유에 주목한다. 그들은 동·서양정치사상의 결합 혹은 융합을 통해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하지만 이승환 스스로도 그러한 작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한다. 이승환은 최근 포스트모던 담론에서 서구의 도구적 합리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자의 사유체계에 나타난 미학적 사유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향들을 바라보면서 유교에 대한 서구담론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즉 계몽주의 초기의 서구의 공자 예찬론은 계몽적 기획의 성공과 그에 따른 제국주의적 팽창과 함께 급격히 공자 폄하론으로 바뀌었듯이, 최근의 공자에 대한 신화화 역시 그들의 재건이 완료되면 언젠가 또다시 토사구팽(兎死拘烹)될 수 있으리라 우려한다(이승환 2004, 67-68). 이것은 곧 유교에 대한 서구의 이해의 일천함에 근거한 도구주의적 수용과 서구적 사유의 이면에 내재해 있는 오리엔탈리즘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부식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사실 동·서양 정치사상 모두 그것들의 발생과 정교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맥락적이다. 결국 그것들이 결합된 역사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것의 재맥락화 과정 역시 현실 정치와의 충분한 고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V. ‘한국’정치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현대 한국정치사상은 정치사상 연구에 있어서 서구정치사상이 무의식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서구중심주의 극복의 과제와 함께 서구 및 동양 정치사상의

고전에 대한 혼고학적 독해가 아닌 현재성을 갖는 정치사상의 구성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동서양 고전의 독해와 해석은 ‘지금’, ‘여기’의 ‘정치’ 및 ‘정치적인 것’의 문제의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무엇을 통해 즉, 정치사상의 어떠한 개념적 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이전에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즉 정확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동서양의 다양한 정치(학)적 개념을 통해 문제를 해석하고 답을 찾아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에서의 정치학 및 정치사상, 정치철학의 연구가 서구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 한국정치사상 및 동양정치사상을 읽는다는 것은 동일한 오류를 반복할 뿐이다. 이미 사라져버린 전통, 혹은 이미 파괴되어 버린 사상을 복원하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혹은 우리의 몸에 내재되어 있는 오래된 전통을 깨우는 것인가? 아니면 서구의 것이 우리의 현재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인가? 한국정치사상을 읽고 한국정치사상사에 대한 작업이 필요한 것은 한국의 역사 및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역사 속에서 정치 및 정치적인 것이 어떻게 이해되었고, 정치적 사유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탐색이 바로 한국정치사상사에 대한 작업이다. 현재에 이르는 한국정치의 역사 속에서 정치적인 것이 변형되고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그것은 서구적 근대와의 만남을 통해 형성된 한국적 근대에 대한 이해이자 한국의 근대사 자체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서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리는 서양정치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서양의 정치사상 및 역사에 대한 이해는 서구 사유 체계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며, 또한 서구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통로이다. 동서양 정치사상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작업은 두 사상의 가운데 어느 지점을 선택하여 그 두 사상의 타협점을 찾는 작업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서양의 정치사상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사유와 고민 속에

서 다양한 정치학적 개념과 사상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적 과제, 사회적 문제 등 현재,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문제화하는 과정이 우선적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해결을 위한 사상적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역으로 전통적 개념을 현재, 여기로 가져와 현재화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전도인 것이다.

우리가 한국정치사와 결합한 한국정치사상을 재구성하고자 할 때, 현재 한국의 정치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는 한국 근대정치의 형성 및 한반도에서 전통적 조선에서 근대적 정치공동체로의 이행과정, 그 실패와 좌절은 물론 다양한 정치공동체의 구성을 위한 사유들과 구체적인 노력들을 살펴보면서 정치와 정치적인 것에 대한 사유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한반도에서 근대성의 형성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이다.¹³⁾ 이 과정은 전통적으로 언급되어온 동양정치사상과 서양정치사상의 만남에 대한 이해이며, 서양정치사상의 개념들의 번역의 과정 – 그것이 동양정치사상에 존재함에 따라 차용되기도 하고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 – 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조선의 정치학자 – 사실 이 개념 역시 서구적이며, 서구의 잣대로 정치학자를 구별해 내는 결과가 된다 – 가 사유했던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내지는 오히려 ‘政治’에 대한 관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서구의 politics의 번역어로 ‘정치’라는 개념이 채택되면서 이해되는 구조, 즉 두 개의 용어가 만나면서 서로를 통해 이해되고 포섭되는 과정과 배제하는 것들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한국적인 근대 정치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한국 사회과학 및 역사학계에서 개념사적 접근을 통해 한국 근대정치사 및 한반도에서 근대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부터 한림

13) 결국 독일의 개념사학파나 일본의 마루야마 마사오와 같은 문제의식, 즉 앞서 진행된 ‘보편’으로서 ‘선발’ 내지는 서구적 근대와의 만남을 통한 ‘후발’ 혹은 동양적 근대, 즉 ‘특수’를 어떻게 형성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한반도의 근대에 대한 이해를 차용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된다. 다만 그것 이상의 문제의식을 확장, 심화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과학원은 <동아시아 기본 개념의 상호소통사업>이라는 개념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성과물을 제출하고 있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코젤렉의 개념사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반도에서 근대성 형성에 대한 천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아시아와 서구의 만남, 서구 근대의 동양 언어로의 번역 그리고 새로운 근대적 주체의 형성 등 한반도에서 전통과 서구 근대의 만남 그리고 근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들을 개념사적 시각을 통해 포착하고자 한다. 현재 그 결과물로 ‘만국공법’, ‘국가, 주권’, ‘헌법’, ‘국민, 인민, 시민’, ‘민족, 민족주의’, ‘문명’, ‘제국’, ‘문학’, ‘보수’, ‘경제, 경제학’, ‘권력’, ‘사회’, ‘인종차별주의’ 등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출판되었고, 코젤렉의 개념사학파의 책들을 번역·출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기존 정치사상사의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 시리즈의 상당수 개념이 ‘서구중심주의적’ 혹은 ‘규범적 관점’을 통해 접근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념사가 추구하는 ‘의미의 생산과정’으로서 번역 과정을 포착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나인호 2014, 102). 몇몇 책의 구성을 살펴본다면, 특정한 개념이 서양에서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탄생하여 어떠한 발전 경로를 거쳤는가에 대한 연구에 상당한 양을 할애한 뒤, 그 개념이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수입되어 어떠한 ‘왜곡’의 과정을 거치는지를 그리려 하고 있고, 다시 서구의 본래 ‘올바른 개념’으로의 정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근대성 형성의 문제에 있어 우리가 개념사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전통 개념의 좌절사를 거쳐 전통과 근대 개념의 복합으로 형성되는 새 개념의 역사”이다(하영선 외 2009, 9). 하지만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술된 『근대한국의 사회과학개념형성사』의 경우 사회사와의 결합의 필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시 개념 논쟁에의 삼면전에서 완패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나 “문명주도국들의 국제적 개념 전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평가 등은 새로운 개념 형성의 역사라기보다는 한반도의 근대사에 대한 규범적 접근과 평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하영선 외 2009, 34-35). 사

실 19세기 말 독자적 근대화의 실패와 뒤이은 식민지화의 역사를 개념 논쟁에서의 패배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은 과도한 관념론적 해석이다. 그 과정은 결국 사회·정치사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개념사 연구가 결합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독일의 개념사학파가 보여준 것에 덧붙여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우 서구의 동양으로의 ‘번역’ 과정이 새롭게 부가되어 있다는 점은 결정적인 변수이다.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부재한 개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수입된 개념에 새로운 의미부여의 과정이자 동시에 사회적 변화 과정이다. 비록 유사한 개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번역 과정에서 서구 개념과의 절충, 융합, 변이를 통한 재개념화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번역과 새로운 개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 개념에 대한 이해, 전통개념과 서구 개념과의 만남, 그리고 번역이나 창조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탄생과정을 탐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그 시기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 이미 번역된 개념이 다시 한국인의 언어로 번역되거나 수입되는 과정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는 것도 덧붙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서 『근대한국의 사회과학개념 형성사』 I, II권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강동국, 김성배의 글은 한반도에서 전통적 개념의 의미, 근대 초 서구적 개념의 유입 시기 중국, 일본에서 개념의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의미의 전환, 그리고 다시 한반도로의 유입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의 변이 과정 등을 서술하면서 개념의 번역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탄생과정을 그리고 있다(하영선·손열염 2012). 반면에 일부 다른 글의 경우 개념의 번역 및 변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두 권의 책에서 서술되고 있는 개념들의 변이과정을 살펴보면서 개념들 간의 상호연관성 그리고 그러한 연관들을 통해 유추되거나 상상될 수 있는 한반도에서 근대성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근대성 형성과 관련하여 근대 지식과 담론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근대적 인쇄매체들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¹⁴⁾이나 정치사 및 정치

14) 인문학 및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공동 작업의 산물로 이화여대 한국문화원(2004)이나

사상 연구자에 의한 해방 이후 한국정치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사상적 접근을 넘어서 정치사와 결합한 한국정치사상의 재구성을 위한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서희경 2012), 자유주의(문지영 2011), 보수주의(이나미 2001; 2011), 시민(정상호 2013), 민족주의(김보현 2006; 강정인 2015) 등에 대한 연구에서 보이듯이, 정치사와 정치사상의 결합은 두드러진 최근 경향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은 실증주의 역사학 혹은 서양정치사상의 개념적 시각을 통해 한국정치사를 접근하기보다는 한국정치사에 대한 엄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정치변동의 주요 계기가 되는 사상적 개념을 추론하고 그것의 형성과 의미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들은 서구 근대 정치사상 개념이 한국 근대 정치사의 전개를 통하여 어떤 굴곡과 변형을 겪는지, 또한 한국의 근대성 형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사상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들은 정치사상과 정치사의 결합으로서 ‘한국’정치사상 연구를 통해 한국정치의 지형을 파악하고, 현재 한국정치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할 가능성과 필요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정치사상연구의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정치학적 탐구는 ‘장기지속’의 시간과 구조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권력관계와 ‘정치적인 것’의 변화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것’ 그리고 정치에 대한 사유의 학문으로서 정치사상, 즉 혼고학도, 역사학도 아닌 ‘정치’에 대한 사유의 학문으로서 정치사상이 자리를 찾아야 한다. 결국 우리가 밭 딛고 서있는 ‘여기’-‘지금’이 출발점이며, 문제를 문제로서 만드는 과정으로서 사유에 대한 학문이 바로 정치사상이며, ‘한국’정치사상이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정치사상이 갖는 ‘규범’의 역할은 서양정치사상 혹은 동양정치사상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와 결합하여 스스로 구성해 나가야 한다. 정치학이 사회과학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무엇

한국문학 연구자의 한국의 근대성 연구로 김현주(2013) 등이 있다.

보다도 우리의 정치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정치학이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을 통해 현재의 정치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강정인. 2004.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 _____. 2007. “한국정치사상 어떻게 할 것인가?: 반성과 대안.” 『사회과학연구』. 15집 2호, 8-46.
- _____. 2013a. 『넘나들通涉의 정치사상』.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13b. “현대정치학의 보편성과 정체성”. 강정인 엮음. 『정치학의 정체성』. 서울: 책세상.
- _____. 2014. 『현대한국정치사상과 박정희』. 서울: 아카넷.
- 강정인, 정승현, 전재호 외. 2019. 『인물로 읽는 현대한국정치사상의 흐름』. 서울: 아카넷.
- 고희탁. 2013. “전후 일본의 정치학 정체성론 연구”. 강정인 엮음. 『정치학의 정체성』. 서울: 책세상.
- 김보현. 2006.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 민족주의와 발전』. 서울: 갈무리.
- 김비환. 1999. “전환기 한국사회의 정치철학의 임무: 한국적 민주정치공동체의 존재론적 기초를 찾아서.” 『한국정치학회보』. 33집 1호, 9-28.
- 김한식. 1999. “한국정치사상 연구서설: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한국정치학회보』. 33집 2호, 29-48.
- 김현주. 2013. 『사회의 발견』. 서울: 소명출판.
- 김형찬. 2018. 『울곡이 묻고 퇴계가 답하다』. 서울: 바다출판사.
- 김홍우. 1992. “감수자 서문”, 『서양정치철학사』. 레오 스트라우스, 조셉 크랍시 엮음, 김영수 외 역. 서울: 인간사랑.
- 나인호. 2014. “‘한국개념사총서’의 이론적 감수성.” 『개념과 소통』. 13호, 87-112.
- 마루야마 마사오. 1995. 『日本政治思想史研究』. 김석근 역. 서울: 韓國思想史研究所.
- _____. 1997a.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김석근 역. 서울: 한길사.
- _____. 1997b. “사상사의 사유방식에 대하여”. 마루야마 마사오, 나카무라 하지메 외. 『사상사의 방법과 대상』. 서울: 소화.
- _____. 1998. 『충성과 반역』. 박충석, 김석근 역. 서울: 나남출판.
- 문승익. 1974. “자아준거적 정치학: 그 모색을 위한 제안.” 『국제정치논총』. 13-14

집, 111-118.

- 문지영. 2011. 『지배와 저항 - 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 서울: 후마니타스.
- 박성우. 2014. 『영혼 돌봄의 정치』. 서울: 인간사랑.
- 박충석. 1998. “해제: 마루야마 마사오의 학문세계”. 『충성과 반역』. 박충석, 김석근 역. 서울: 나남출판.
- 배병삼. 2013. “한국정치학의 기원과 정체성 탐색”. 강정인 엮음. 『정치학의 정체성』. 서울: 책세상.
- 부남철. 2002. “한국정치사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권 1호, 9-26.
- 서희경. 2012.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서울: 창비.
- 손문호. 2001. “한국정치사상사 연구의 현황과 논점”. 2001. 5. 26.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창립학술대회.
- 안외순. 2011. “한국사회과학의 자생적 성장: 한국 전통 정치사상의 현대화 모색을 중심으로”. 『東方學』. 21집, 353-390.
- 양승태. 2006. “국가정체성 문제와 정치학 연구: 무엇을, 어떻게 - 하나의 거대 연구 기획을 위한 방법론적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40집 5호, 65-79.
- _____. 2011. “국가정체성 문제와 한국의 정당: 거대 담론의 출발을 위한 정치철학적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45집 4호, 5-27.
- _____. 2015. “정치사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 헤겔의 ‘철학으로서의 철학사’ 이념에 대한 재성찰”, 한국정치사상학회 발표문.
- 이나미. 2001.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서울: 책세상.
- _____. 2011. 『한국의 보수와 수구』. 서울: 지성사.
- 이승환. 2004. 『유교담론의 지형학』. 서울: 푸른숲.
- _____. 2012. 『횡설과 수설』. 서울: 휴머니스트.
- 이화여대 한국문화원. 2004. 『근대 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서울: 소명출판.
- 이희복. 2010. “전통사상과 고유양식, 그리고 일본사상 -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본 사상사 방법론을 소재로”. 『인문과학연구』. 24집, 329-360
- 이택휘. 1999. 『한국정치사상사』.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장현근. 2012. 『성왕. 동양리더십의 원형』. 서울: 민음사.
- 정상호. 2013. 『시민의 탄생과 진화』. 서울: 한림대출판부.
- 정운재. 1999. “‘자아준거적 정치학’과 한국정치사상연구: 문제해결적 접근의 탐색”. 정운재, 김영수, 김석근, 한규선, 정영훈. 『한국정치사상의 비교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원.
- 조찬래. 1996. “정치사상 연구의 50년사 - 현황, 경향 및 문제점”. 『한국정치학회보』. 29집 4호, 9-28.
- 최창규. 1979. 『근대한국정치사상사』. 서울: 일조각.
- 하영선 외. 2009.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사』. 서울: 창비.
- 하영선·손열 엮음. 2012.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사』 2. 서울: 창비
- 함규진. 2014. “레오 스트라우스: 철학자와 정치인의 갈림길에서, ‘책의 목소리를 들어라’”. 『인물과 사상』, 통권 192호, 101-113.
- Ball, T. Dagger, R. et O’neil, D. 2019. 『현대정치사상의 파노라마』. 강정인 외 역. 서울: 아카넷.
- Koselleck, R. 1998. 『지나간 미래』. 한철 역. 서울: 문학동네.
- Lefort, C. 2015. 『19-20세기 정치적인 것에 대한 시론』. 홍태영 역. 서울: 그린비.
- Richter, Melvin, 2010.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 송승철, 김용수 역. 서울: 소화.
- Ricoeur, Paul. 2003.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 윤철호 역. 서울: 서광사.
- Rosanvallon, P. 2002. *Pour une histoire conceptuelle du politique. Leçon inaugurale au Collège de France faite le jeudi 28 mars 2002.* Paris: Seuil.
- Skinner, Quentin. 2004. 『근대정치사상의 토대』. 박동천 역. 서울: 한길사.
- _____. 2007. 『퀸틴스키너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조승래 역. 서울: 푸른역사.
- _____. 2010. 『마키아벨리의 네 얼굴』. 강정인, 김현아 역. 서울: 한겨레출판.
- _____. 2012. 『역사를 읽는 방법』. 황정아, 김용수 역. 서울: 돌베개.
- Strauss, Leo. 2001. 『자연권과 역사』. 홍원표 역. 서울: 인간사랑.
- _____. 2002.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 양승태 역. 서울: 인간사랑.

투고일: 2020.02.09 심사일: 2020.03.25. 게재확정일: 2020.04.02.

An Essay on the Search of Korean Political Thought beyond the Dichotomy of Eastern or Western Political Thought

Hong, Tai-Young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is article tries to suggest ways for the formation of Korean political thought in overcoming the dichotomy of eastern and western political thought. For this objective, we examine what is the political thought, how we study the political thought, and what is the role of political thought. The 2nd chapter examines the four principal streams of political philosophy in the late 20th century which treat the problems of relation between political philosophy and history: the political philosophy of Leo Strauss in the Chicago school, that of Q. Skinner in the Cambridge School, that of R. Koselleck in the conceptual history school and that of P. Rosanvallon in the Annales. In the 3rd chapter, we examine the problematics of Maruyama Masao, that is, the transformation and formation of modernity in Japan and the formation of Japanese political science. And we examine the intellectual trials of the researches of political thought in Korea after the 1990's. In comparing these schools, we draw meanings to the Korean political philosophy, that is, what would be done the Korean political philosophy, what is the tasks of Korean political philosophy. In definitely, the Korean political philosophy should resolve the problems of the formation of modernity in Korea, which is to trace the particularity of Korean modernity. Finally, we suggest meanings of distinction of eastern and western political thoughts and, propositions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this distinction.

Key Words | Political Thought, Korean Political Thought, Methods of Political Thought, Modernity, Eurocentrism